

4월 장성역사인물에 ‘만암 스님’ 선정

한국불교 ‘큰 스승’ ... 1947년 백양사 고불총림 설립

장성군이 4월의 장성역사인물로 '만암 스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876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난 만암 스님은 1885년 백양사 도진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출가했다. 이후 여러 사찰에서 큰스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1916년에는 백양사 48대 주지로 취임해 사찰을 새로 짓는 '증창불사'를 시작했다.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해화전문학교, 정광중·고등학교를 여는 등 교육사업에도 매진했다. 1947년에는 한국 최초로 백양사고불총림을 설립했다.

1954년 조계종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종장'에 취임했으나 종단의 종조를 바꾼 것을 비판하며 그해 종정직을 사임했다. 이후 백양사로 돌아와 1957년 설선당에 앉

아서 열반에 들었다.

구한 말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평생을 인재 양성과 애써 불교 적결에 앞장선 만암 스님은 한국불교의 기틀을 다진 '큰 스승'으로 평가받는다.

지금도 백양사 사천왕문 앞에 가면 만암 스님이 평생 화두로 삼고 수련해 온 '이뒹고'가 새겨진 탑을 만날 수 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뜻인데,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화두 가운데 하나다.



장성군 백양사 사천왕문 앞에 가면 만암 스님이 평생 화두로 삼고 수련해 온 '이뒹고'가 새겨진 탑을 만날 수 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뜻인데,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화두 가운데 하나다. /장성=심재식 기자

화순,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개소당 최대 30만원

화순군은 관내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업체에 식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산 김치는 수입산 김치보다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나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산 김치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식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일반음식점 중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위원회로부터 국산 김치 사용 업체로 인증을 받은 음식점으로, 관내 165개소를 지원한다.

개소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국산 김치 제조에 필요한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또는 김치 완

제품을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인증 업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인증 업체가 지원받고자 하면 사전에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인증받아야 하며, 인증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정신청서와 국산 김치 재료 구입내역서 등을 제출하거나 김치협회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한 농촌활력과정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산 김치 사용 확대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외식업소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영광, 지역공동체 참여 교통환경 개선 공모 선정

8개월간 1억원 투입... 최근 3년간 사고 많은 주요 지점 3곳 안전 강화

영광군이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주요 교차로 안전 기반 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영광군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공동체 참여 교통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11월까지 8개월간 1억원을 들여 영광읍 일대 중심지의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지자체, 경찰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지역 내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신규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지는 최근 3년간 사고가 집중된 신하교차로, 종산교차로, 남천사거리 3곳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2기, LED 유도등이 포함된 활주로형 횡단보도 2개소가 설치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안전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실무협의

회 등 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지역 밀착형 교통안전 개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은 주민과 행정, 경찰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고 없는 안전한 영광, 주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

담양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최신 의료 장비 갖춘 대형 버스 방문... 의료상담·기본 검사 진행

담양군은 최근 해림종합복지관(관장 이병웅)에서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건강버스'와 연계한 사업으로, 장애로 인한 이동 불편 및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현장에서는 순천의료원, 담양군 보

건의, 지체장애인협회 등 16명의 인력이 참여해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와 더불어 장애인 보장구 무료 수리, 푸드트럭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함평,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

‘월 최대 12만원’ 할인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함평군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5년 함평군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는 전라남도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에 등록된 함평군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요금을 차등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할인 혜택은 1박 기준 요금에 따라 ▲10만 원 이상 숙박 시 4만 원 ▲7만 원 이상 3만 원 ▲5만 원 이상 2만 원이 적용되며, '전남 사랑에(愛)서포터즈' 가입 시 1만 원이 추가할인된다. 이용은 월 1회, 최대 3박(연박)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오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함평나비대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많은 관광객이 이번 숙박 할인 이벤트를 통해 함평에서의 특별한 여행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 “탐진강 물축제장 주변 위치찾기 쉬워진다”

‘탐진강동·서쪽자전거길’→‘물축제길, 노벨문학길’ 변경

장흥군은 7월말 열리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준비와 노벨문학도시장흥 홍보를 위해 탐진강변 도로명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기존 '탐진강동·서쪽자전거길'을 '물축제길, 노벨문학길'로 변경했다. 그간 물축제장은 공중화장실 등 일부 편의시설을 제외하면 위치를

으로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람 공고를 실시했다.

4월 초에는 도로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및 주소사용자의 서면동의를 거쳐 도로명 변경을 완료했다. 그간 물축제장은 공중화장실 등 일부 편의시설을 제외하면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가 없어 군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장흥군 관계자는 "축제장 내 촘촘한 위치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방문객들이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약속장소를 정하기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로명주소를 통한 정남진 장흥 물축제 및 노벨문학도시 장흥 홍보 또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함평 ‘소통피크닉’ 행사 확대... 수평적 조직 문화 확산

공직자 간 소통·이해 증진

함평군이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은 "공직 사회 내 소통을 강화하며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소통피크닉'을 매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통피크닉'은 2021년부터 추진해온 '직업 생일 축하해요!'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으로, 직급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조직 내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공감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상의 함평군수와 공직자가 편안한 공간에 모여 일상적인 이야



기부터 군정 운영, 건의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며 조직문화 개선과 행정 아이디어 발굴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한 한 MZ세대 직원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니 군수님이 이웃집 삼촌처럼 느껴졌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가 많이 마련돼 동료 직원들과 즐거운 공직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된 업무 속에서도 즐거움을 잊질 않고 군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책도 발굴해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지대만 기자

전남체전·장애인체전 대비

장성, 일제 대청소 지속 실시

장성군이 최근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 개최를 맞아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체전 개최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는 군 공무원과 유관기관·사회단체·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읍시가지와 경기장 주변 쓰레기를 줍고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청결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수거된 쓰레기는 환경관리센터로 운반해 즉시 처리했다.

정소는 체전 개최 하루 전인 1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장성군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노면청소차를 운영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도 지역사회단체, 마을주민들과 함께 자체적인 환경 정화 작업을 이어간다.

그밖에 마을방송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탄소중립 실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옛 장흥교도소서 락 페스타 분위기 ‘후끈’



장흥군은 (옛)장흥교도소에서 두루두루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부제: 뽀빠용zip rock festival)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밤이 깊었네', '좋지 아니한가' 등 히트곡을 보유한 크라임넛과, 인디 록의 전설 노브레인이 공연을 펼쳤다.

2023년 KT&G 상상마당 밴드 디스커버리 우수상을 받은 화노, 2024년 인천 펜타 슈퍼 루키 은상, 2024

년 기형도 음악제 대상(2024)을 받으며 혜성같이 등장한 모허, 그리고 2021년 JTBC 슈퍼밴드2에서 결성된 여성 4인조 밴드로 2023년 인천 펜타포트 슈퍼 루키 대상을 차지한 더 픽스 등 신성 록밴드가 출연하여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콘서트 전에는 마켓페스타로 장흥의 먹거리와 다양한 아트 부스를 함께 운영했다.

김성 군수는 "(옛)장흥교도소 콘서트에 오신 분들이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담양, 초록에 물들다

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

소원을 품은 대나무, 상상하는 곳으로 데려가요!

제24회
담양 대나무 축제
2025.5.2.금~5.6.화 (5일간)
죽녹원 일원

주최·주관 |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